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 지역공동체 중심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2021년 1월 29일(금)  
14:00~16:30



## ■ 목 차

- **기조발제 | 사라트 다발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장) ..... 3
  - 인도 나미비아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방법론과 의미 :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 **발제1 | 김자경**(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13
  - 공동체 공유자산의 본재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 **발제2 | 강제윤**(섬연구소장) ..... 29
  - 섬마을 장고도의 공동체 기반 기본소득 이야기
  
- **발제3 | 이창한**(지역재단 기획이사) ..... 45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 **토론1 | 박경철**(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 67
  -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점검
  
- **토론2 | 이수인**(경기도 포천'장독대마을'대표) ..... 79
  - 마을공동체의 농업 경영 복합체 기반 주민소득 창출 이야기
  
- **토론3 | 문보경**(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 ..... 83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탐색
  
- **토론4 | 이지은**(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89
  -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 ■ CONTENTS

### ○ Keynote Speech

| **Sarath Davala**(Chairperson, Basic Income Earth Network)..... 3

- A Study on the Methodology and Meaning of the Basic Income Social Experiment in India and Namibia :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 ○ Speech 1

| **Kim Ja-kyung**(Professor, Jeju University) ..... 13

- A Social Experiment on Basic Income as a Dividend of Community Shared Assets

### ○ Speech 2

| **Kang Je-yoon**(Director, Island Institute) ..... 29

- A Case Study of Community-based Basic Income in Janggo-do, an Island Village

### ○ Speech 3

| **Lee Chang-han**(Planning Director, Korea Regional Development Foundation) 45

- The Social Experiment Design of Basic Income in Rural Areas in Gyeonggi-do

### ○ Panel 1

| **Park Kyung-cheol**(Director, Chungnam Research Institute) ..... 67

### ○ Panel 2

| **Lee Su-in**(CEO, Kyodong Village 'Jangdok') ..... 79

### ○ Panel 3

| **Mun Bo-kyung**(Director, Gyeonggi Province Social Economy Center) 83

### ○ Panel 4

| **Lee Ji-eun**(Chairperson, Basic Income Young Researchers Network) 89

## 기조발제 | Keynote Speech

인도와 나미비아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방법론과 의미  
: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thodology and Meaning  
of the Basic Income Social Experiment  
in India and Namibia  
: Focusing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의장(BIEN)

Sarath Davala  
Chairperson, 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 인도와 나미비아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방법론과 의미: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2021년 1월 29일

A Study on Methodology and Meaning of Basic  
Income Social Experiment in India and Namib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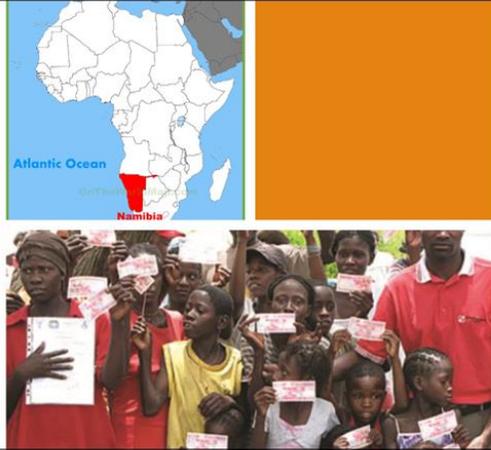
Focusing on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KEYNOTE ADDRESS BY DR. SARATH DAVALA AT

THE FIRST RURAL BASIC INCOME POLICY FORUM

ON-LINE CONFERENCE – JANUARY 29<sup>TH</sup>,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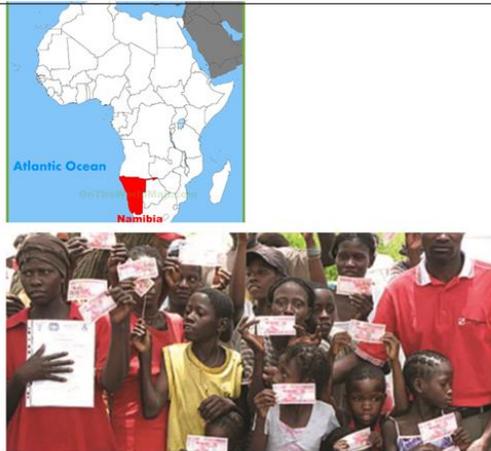
나미비아 기본소득  
사회실험 - 2008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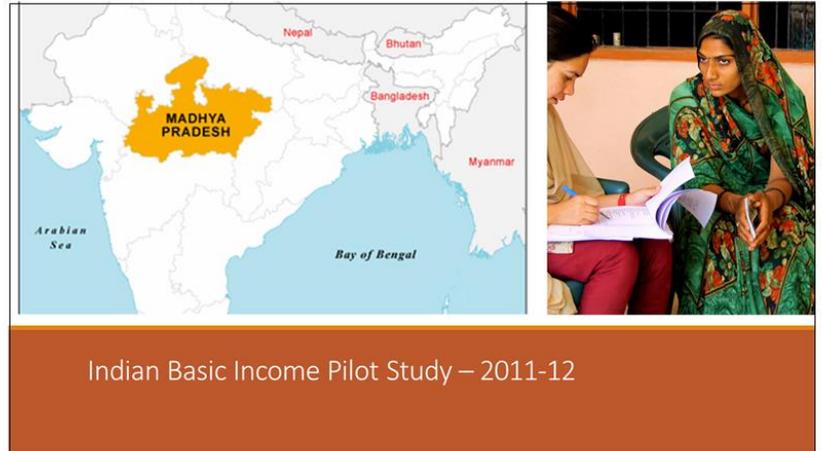
인도 기본소득 사회실험- 2011년 12월



Namibian Basic  
Income Pilot  
Study - 2008-09



Indian Basic Income Pilot Study - 2011-12



## 인도와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사회실험 비교

	나미비아	인도
주관 기관	기본소득보장연합(Basic Income Guarantee Coalition, 6개 비정부기관 연합체)	인도 자영업 여성협회(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수혜자 수	1,000명	6,000명
월 개인별 기본소득	미화 12달러	미화 4달러
실험 완료일	2008년 9월	2011년 12월
<b>주요 연구결과</b> 1. 가계 빈곤 감소 2. 경제활동 증가-노동 참여&기업활동 3. 아동 영양실조 감소 4. 아동 학교 출석률 증가 5. 가계 빚 감소 6. 나미비아 범죄율 감소 7. 알코올 소비량 증가 없음		

## 사회실험이 필요한 이유

- ❖ 신뢰성이 높고,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라 과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다고 인식되며, 존중받는 실증적 근거를 생산하기 위함
- ❖ 왜 근거가 필요한가? 정책 입안자들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효능이 입증된 정책을 채택하게 하게 만들기 위함.
- ❖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은 어떤 것인가? 언제 시작됐는가? 1990년대.
- ❖ 1980년대 의학에서 사용된 무작위 대조군 실험 방법론 복제
- ❖ 이념에서 비롯된 정책 결정 vs 근거에서 비롯된 정책 결정

## Two Pilot Studies

	Namibia in Africa	India in South Asia
Who did the study?	Basic Income Guarantee Coalition (of 6 NGOs)	Self Employed Women's Association – a women's Trade Union
How many recipients?	1000	6000
How much was given per individual per month?	12 US Dollars	4 US Dollars
When was it done?	2008-09	2011-12
<b>Major Findings – Common to both Studies</b> 1. Household Poverty dropped 2. Economic Activity Increased –labour participation & entrepreneurial activity 3. Child malnutrition decreased 4. School attendance increased 5. Household debt decreased 6. Crime rate decreased in Namibia 7. No increase in alcohol consumption		

## Why do we do Experiments?

- ❖ To produce evidence that is credible and perceived to be scientifically robust with all protocols followed, and respectable.
- ❖ Why do we need evidence? So that policy makers know "what works" empirically, and adopt such policies that have proven efficacy empirically
- ❖ What is Evidence-based Policy making? When did it begin? The 1990s.
- ❖ Replicating the Random Control Trials Methodology used in Medicine in the 1980s
- ❖ policy decisions based on ideology vs decisions taken based on 'evidence'

## 영국 토니블레어 정부의 현대화(Modernising Government) 백서(1999)



“정부는 단기적인 압력에  
반응해 원인 대신 증상만을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근거에  
기인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Tony Blair government's White Paper on Modernising Government (1999)



“Government must produce  
policies that really deal with  
problems that are forward  
looking and shaped by evidence  
rather than a response to short-  
term pressures that tackle  
causes and not just symptoms”

## 기본소득 사회실험이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 ❖ 과거 정책 수립 방식은 어떠했는가? 예: 노예제 폐지, 여성참정권
- ❖ 사회실험 연구 성과만으로는 사회정책으로 바로 채택될 수 없다 - 인도와 나미비아 사례
- ❖ 사회 정책들은 우리사회의 가치와 철학적이고 도덕적 추론을 포함한다
- ❖ 좋은 조합 = 강한 가치 기반의 철학적, 도덕적 주장 + 강력한 증거
- ❖ 이 두가지 측면이 함께 수렴될 때, 비로소 객관적 근거들은 큰 가치를 가진다

## How much can pilot studies achieve?

- ❖ How were policy decisions taken in the past? Examples: abolition of slavery, voting right to women
- ❖ Evidence from Pilot studies alone cannot immediately translate into social policies - Examples of India and Namibia
- ❖ Social policies involve our values and philosophical and moral reasoning
- ❖ Good combination = Strong value-based philosophical and moral argument + Strong evidence
- ❖ When these two aspects converge, evidence has great value

## 사회실험의 다양한 역할

---

- ❖ 일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 *객관적 근거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 ❖ *과학적 목적*은 사회실험의 여러 목표 중 하나이지만,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 ❖ 사회실험은 학자들, 언론, 정치인 등 넓은 범위의 사람들 간의 *사회적 대화를 연다*
- ❖ 우리 사회에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Utopian) 아이디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논의하고 소개하는 맥락, 실마리를 제공한다

## Various Functions Pilots Serve

---

- ❖ Some people ask: *How much more evidence do you need?*
- ❖ The *scientific objective* is just one purpose pilots serve– but important one
- ❖ It opens *public conversation* in the wider society – among scholars, media and politicians
- ❖ Provides a context to introduce in the society what is seen as a *utopian idea*

## 발제1 | Speech1

###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재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 A Social Experiment on Basic Income as a Dividend of Community Shared Assets

---

김자경

제주대학교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Kim Ja-kyung  
Professor, Jeju University



###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와 기본소득의 가능성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김자경

## 1. 커먼즈의 섬, 제주

172리 530통 5445반  
566자연마을

제주시 19행정동(40법정동)  
4읍3면 362자연마을

서귀포시 12행정동(22법정동)  
3읍2면 204자연마을



## 마을의 기원, 물통



- 지하수가 솟구쳐 나오는 용천수를 '물통'이라 함. 주로 해안가를 따라 형성. 따라서 제주 마을을 주로 해안가를 따라 형성됨.
- 설촌유래 : 약 500여년 전 추정. 1553년경 등벵이물에 정착, 화전생활
- 과거 행원 마을에는 3개의 자연마을이 있고, 3개의 물통이 있었음.
- 사진은 지서물과 말랭이물
-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물통은 사라지게 되었음.



## 커먼즈로서 바다 : 마을공동어장

- 자연마을의 구성 : 1조합 동동, 2조합 중동, 3조합 중앙동, 4조합 상동, 5조합 하동, 6조합 서동
-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바다를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자연마을에 할당
- 바다를 크게 3구역으로 나누고 2개의 조합(자연마을)씩 바다를 할당. 바다의 물리적 조건이 달라 매년 돌아가면서 이용. 바다를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관습
- 툇과 우뭇가사리는 공동 배분, 미역은 개인 작업



## 마을공동어장



출처: <http://blog.daum.net/kunmeri/26>

## 커먼즈로서 토지 : 마을공동목장

- 행원리는 반농반어의 마을
- 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목축계', '번쇠' 등 소를 방목지에 데려가 풀을 먹이는 계를 조직. 소를 소유한 수 만큼 돌아가면서 당번을 맡음.
- 마을공동목장도 3군데로 구역을 나눠 2개 자연마을이 이용.
- 최근 행원리 공동목장은 소를 기르는 마을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 축산시장에 소를 팔아도 큰 소득을 올리기 어렵고, 목장을 빌리려는 사람도 없어 임대도 하지 못하고 있음.



출처)  
<http://cafe.daum.net/family369love/OgQ2/4?q=%EC%A0%9C%EC%A3%BC+%EC%A4%91%EC%82%B0%EA%B0%B4+%EB%AA%A9%EC%9E%A5&re=1>

## 마을공동목장



출처) <https://blog.naver.com/algidrh/221090916007>

## 2. 커먼즈의 개념과 쟁점



### 커먼즈로서 자원

- 오스트롬은 자원을 비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물리적 속성으로 설명
- 최현은 자원 이용의 독점정당성 문제를 중점에 두고 비배제성에 관한 개념에 문제를 제기. 기술이 발전하거나 사유재산권이 강화되면서 배제할 수 없었던 자원이 배제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
- 커먼즈론에서 다루는 자원은 “배제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자원, 그리고 정당성 없이 독점할 수 없는 자원이어야 한다. 독점에 대한 정당성이 작을 때 배제가능성도 작아지기 때문”

## 쟁점 1 소유권

- common-pool resource 대 common property resource
- 서울 마포구의 해빛투게더협동조합, 경기 시흥시의 예비사회적기업(주)빌드의 사례처럼 ‘시민자산화’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커먼즈(common property resource)로 사용하려는 사례.
- 제주 선홍1리 동백동산의 사례처럼 국유지인 마을 숲(common-pool resource)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마을 사례

### 마을공동체와 커먼즈

- 마을은 생업의 장이자 삶의 터로서 물질적 기반이 중요. 이 물질적 기반이 커먼즈로서 자원임.
- 바다는 공유수면으로 국공유지와 동일하지만, 소유권의 관계를 묻지 않고 마을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누구나 모자라지 않게 사용해 왔음. 즉 '자원의 희소성을 극복하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왔으며, 마을 공동체는 커먼즈를 통해 만들어졌음.
- 마을 사람들이 정성 들여 일구어 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하는 바다를 마을의 소유라고 인식. 즉 마을의 공동체 공유자산이라고 여기게 됨.

## 쟁점 2 누가 마을사람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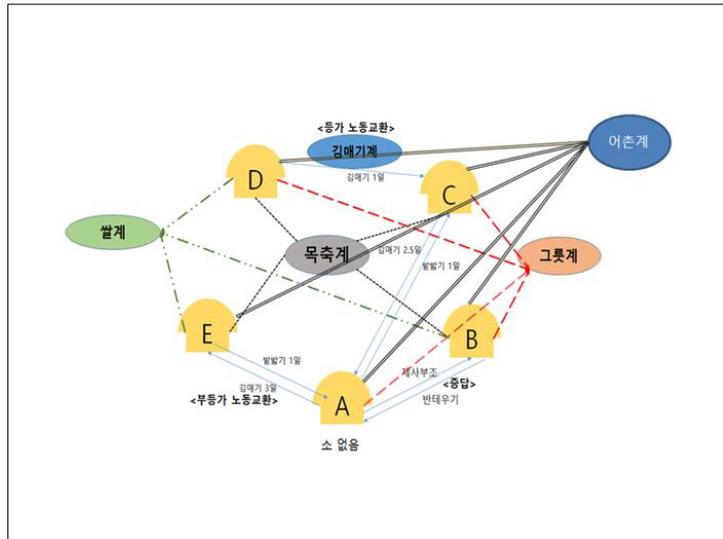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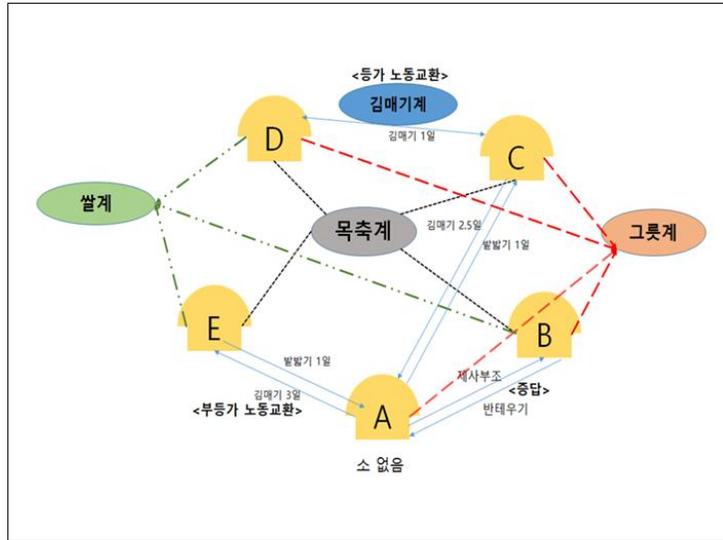
- 사람들은 주로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만 하면 그 마을의 주민으로서 권리를 얻고 있음. 행정적 측면.
- 농촌지역에서는 커먼즈를 이용하고 관리하여 수익을 배분 받는 권리주체로서, 그리고 자원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당사자 인정' 문제를 제기함.
- 농촌마을에 들어와서 신뢰를 쌓으며 살면서 마을의 기본 구성원이 되어 자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관습상의 권리를 얻는 것을 '입호권'이라 함.
- 커먼즈는 생계를 이어나기 위해 중요한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입호에 관한 권리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 원래부터 살고 있던 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심화. 공공성과 공동성의 갈등 존재
- 어촌계 해녀와 다이버 갈등 사례

### 커먼즈의 관습 및 제도

- 마을공동어장과 마을공동목장은 마을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면서 커먼즈가 되었음.
- 커먼즈는 어촌계, 목장조합 등을 구성하여 이용, 관리하고 있음. 규약을 정하고 있음.
- 개별 가구가 수행하기 어려운 일은 계 또는 마을 단위로 서로 도움. 특히 관혼상제에 관한 일.
- 제주에서는 이러한 상호부조의 모든 관계를 '수눔'이라 부르며, 수눔 관계망은 자연환경이 준 삶의 지혜로서 공동체적 사회 안전망을 구축했음.

## 3. 제주 수눔 문화와 커먼즈

- 커먼즈를 이용하는 계와 그렇지 않은 계가 존재
- 마을성원권이 확인되어야 커먼즈의 이용권리 발생. 입호권
- 각 계의 운영은 독립적이지만, 마을 내 생활에서 연결되어 있음
- 그 연결지점은 현재와 같은 공동의 사업 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층적으로 여러 계에 속하면서 발생하는 연결망임.
- 이 계의 체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생존이 어려움.
- 이기적 개인 분명 존재. 그러나 무임승차자를 제거하는 상호부조의 시스템이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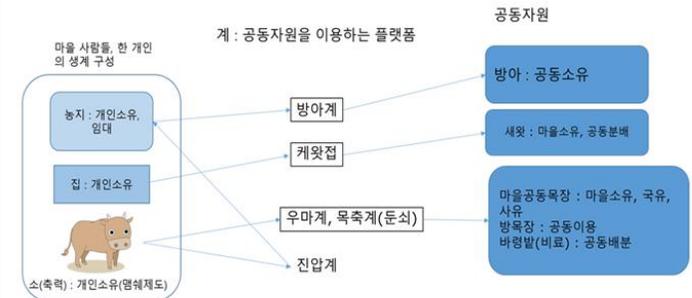


### 행원리 마을의 구조



## 4. 공동체 공유자산의 분배구조

### 과거 커먼즈의 분배구조



## 편향수



## 바람, 행원리의 커먼즈가 되다



- 마을의 발전을 위해 외부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결국 실패
- 1997년 산업자원부와 제주도는 풍력 발전단지 조성
- 풍력발전단지 사업자는 인근 마을에 지원금 지급
- 2011년 제주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12년 행원풍력에너지 특성화마을 법인 설립

## 현재 커먼즈의 분배구조

- 행원풍력에너지법인 설립
- 풍력발전으로 얻은 수익은 6개의 자연마을과 마을회가 공평하게 7등분하여 배분함.
- 마을회의 경우 이 수익을 행원리장학회(교육청 인가)에서 사용
- 마을회나 행원풍력에너지법인은 자연마을이 그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여할 수 없음.
- 6개의 자연마을도 자체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며 '동회'라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음.
- 마을 내 갈등이 발생하고 이견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존재함. 행원리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장이 행원리목장회 회장, 행원풍력에너지법인 이사장, 행원리장학회 이사장을 겸직
- 그렇다고 해서 이장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음. 마을연석회의, 개발위원회 회의, 임원회의, 마을총회 등을 거치지 않으면 이장도 단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임.

## 5. 커먼즈론과 기본소득의 접점

- 기본소득의 뿌리가 중세 유럽의 마그나카르타, 산림헌장에 있다고 가이 스탠딩이 언급. 피터 라인보우는 커먼즈의 뿌리를 마그나카르타와 산림헌장에서 찾고 있음.
- 커먼즈는 공동체의 생산수단이자 생계수단이며, 개인의 부와 공동의 부(마을단위)를 창출하고 공평하게 배분함. 공동자원을 둘러싼 네트워크의 중첩은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함.
- 커먼즈를 해체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으며,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에 커먼즈의 재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임.
- 따라서 기본소득이 공동자원의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공동자원은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가능성이 매우 큼.

- 커먼즈 관련 연구들은 상당부분 공통적으로 자본주의의 성장방식을 비판하면서 시장이 인클로저(사유화 및 독점화) 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음. 국가는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휘두르며 대기업에게 부를 집중시켜주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임.
- 이에 대한 저항의 양식을 찾는 가운데, 다양하게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공동체 운동의 사례들을 제시
- 커먼즈와 공동체의 역동성은 공동체 구성원 개인의 부와 커먼즈를 이용한 공동의 부가 동시에 상승하는 체계를 갖추었을 때 빛이 남. 개인의 부는 커먼즈를 이용하거나 커먼즈 수익 배당을 통하여 얻어지고, 커먼즈 자체도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는 측면과 커먼즈 자체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 이를 구성원에게 나눠지는 측면 등이 있음. 이와 같이 커먼즈에 대한 권리가 강화될 수록 공동체의 자치권은 강화될 수 있음.

-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하수의 오염, 기후 위기, 쇠락한 도시, 돌봄의 위기, 지식의 독점 등 인클로저는 다양한 모습으로 기세를 떨치고 있음.
- 인클로저는 커먼즈의 사유화로 진행되는데, 원래 상품이 아니었던 것들이 상품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음.
- 커먼즈는 사회 혁신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빼앗긴 것에 저항을 하기 위해, 사회 생태적 위기에 대항하기 위해, 배제되어서는 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기본소득 운동이 지향하는 바와 공통점이 많음. 다만 커먼즈의 작동 과정처럼 기본소득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사회실험에 관심이 많음.

## 6. 커먼즈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1. 공동체의 존재 유무
  - 제주의 다수 마을에서는 개별농가에게 지불된 농업직불금을 마을에서 모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식사비용, 마을 행사에 사용.
  - 마을 공동체성이 강하고 마을단위 의사결정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로 기본소득을 수령한다 하더라도 좋거나 나쁜 의미로 마을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함.
2. 주체와 경계의 문제
  - 공동자원은 경계와 주체가 명확한 편임. 비록 공유지라 할지라도 관리하고 이용하여 수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자원을 '모두의 것'이라 인식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 공유부라 하였을 때 이러한 인식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주체의 문제는 당사자성 문제로 연계되며 이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함. 마을사람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기득권으로 작용함. 공공성과 공동성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
3. 공동자원의 수익 구조, 시장과 연계된 새로운 지대추구의 가능성 존재
  - 행원의 경우 풍력발전법인이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는 일종의 '지대 추구'와 비슷한 상황임. 과거 공동자원은 함께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했다면, 풍력발전의 경우 마을사람들의 공동 노동력이 동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한편 풍력발전지구를 구획하고, 전력시장이 역할에 따라 분리되면서 바람이라는 공동자원을 이용한 전기생산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 사례로도 볼 수 있음. 공동자원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4. 민주주의의 문제
  - 커먼즈 자치권과 자립을 강화했지만, 민주주의를 해소한 것은 아님. 마을 내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이들이 마을 내에서 의사를 개진할 수 없음. 특히 쟁점문제는 심각한 편임. 이를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5. 앞으로의 기대
  - 농민배당, 농가기본소득 그리고 농촌기본소득으로 논의가 변화하는 과정임을 느끼고 있음. 이와 같은 정책이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만 머물지 않기를 기대함. 농촌 마을에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어떻게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농촌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시작해야 함. 현재 제주는 마을 자산을 매각하여 자식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으로 자신의 생의 임기를 마감하겠다는 경향이 상당히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음.

감사합니다



## 발제2 | Speech2

섬마을 장고도의 공동체 기반 기본소득 이야기

A Case Study of Community-based  
Basic Income in Janggo-do, an Island Village

---

강제윤  
섬연구소장

Kang Je-yoon  
Director, Island Institute

## 주민공동체의 기본소득 구현 사례-장고도

-강재윤(사)섬연구소장





## 기본소득 자원: 해삼, 전복 양식 수익금 배당

- 장고도 기본 소득의 자원은 어촌계에서 해삼과 전복을 바다에 방사해서 키우는 양식의 수익금으로 마련된다.
- 해삼, 전복 종묘를 뿌리고 난 뒤에는 사료를 줄 필요도 없고, 달리 크게 관리도 할 일도 없다. 바다 속에서 알아서 먹고 커주기 때문이다. 채취할 때도 해녀들과 계약을 맺고 해녀들이 채취해 준다. 젊은 사람들 일부는 해적들 감시하기 위해 가끔 순찰을 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공평하게 소득을 배당 받는다. 노동 소득이 아니라 누구나 공평하게 받는 기본 소득에 해당된다.
- 장고도 거주 20년이 못된 주민들 5가구를 제외하고 75가구만 해당하니 완벽한 기본 소득이라 할 수는 없지만 95%는 기본 소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이라는 진입장벽이 없다면 작은 섬마을 공동체가 유지 될 수 없다. 누구나 이사 와서 배당해 달라고 한다면 감당이 되지 않을 것이다. 5가구도 기간이 되면 배당을 받게 된다.

## 생물 해삼



## 건해삼으로 만든 오룡해삼



중국에서 해삼 1마리 1인분 요리 50만원 이상



## 장고도 어촌계 해삼, 전복 양식 배당금 현황 -1993년 89만원 배당 시작, 2020년까지 27년간 배당

년도	지급가구수	금액 (천원)	총액 (천원)
1993	69	850	58,650
1994	69	1,100	75,900
1995	69	1,300	89,700
1996	69	2,200	151,800
2017	75	6,600	495,000
2018	75	9,600	720,000
2019	75	11,000	825,000



## 장고도 해삼 전복 생산 현황

○ 장고도 어촌계 년도별 해삼, 전복 생산현황

년도	해삼			전복			총계(천원)
	생산량(kg)	단가	금액(천원)	생산량(kg)	단가	금액(천원)	
1996	13,869	3,200	44,380	8,281	49,000	405,818	450,198
2000	44,114	3,200	141,164	6,407	60,000	384,420	525,584
2008	132,453	8,600	1,139,095	1,235	52,000	64,220	1,203,315
2019	69,400	21,940	1,522,636	1,000	50,000	50,000	1,572,636

○ 년도별 배당금 현황('93~2019)

## 장고도 기본소득 실현 과정

- 1983년, 25살 청년 편삼범이 장고도 어촌계장 선출. 당시 장고도 주변 해역의 해산물 채취권을 장고도 어촌계에서 연간 50만원에 업자에게 임대 중이었음. 업자가 25만원으로 인하 요구. 편삼범 어촌계장이 부당함 느껴 어촌계 총회에 호소 자체 운영키로 결의. 관리선 매입 후 자체 채취 및 양식 시작. (편삼범-편현숙-편도진 어촌계장으로 이어짐)-현재는 편현숙 이장이 리더(2020년 섬 가구기 공로로 국민포장 수상)
- 1993년 장고도 주민 전 가구 1년 배당 시작: 가구당 85만원.  
새만금 사업으로 전복들이 거의 멸종하고 해삼이 많아지자 해삼에 주력하기로 결정. 자연산 해삼을 채취만 하던 데서 벗어나 해삼 종묘를 바다에 뿌려 키우는 양식으로 전환. 지금도 해마다 1억 원 쯤의 종묘를 넣어 해삼을 양식 중.
- 2019년 해삼 69.4톤 전복 1.5톤을 채취해 약 16억원의 매출액 산출. 해녀 작업비와 기타 운영비를 제외하고 가구당 1100만원.
- 해삼 양식과 전복 채취 배당금은 장고도 20년 이상 거주자만 받아. 전체 81가구 중 75가구가 혜택.
- 약간의 한계: 개별지급이 아니라 가구당 지급, 조건 없는 지급이 아니라 진입장벽을 둔 것은 완전한 기본 소득에는 못 미치지만 섬 해양 자원의 한계때문- 이미 그 자체로 성공적 모델.

## <배당 사업 시작까지의 시련>

- -1983년 마을 자체 양식 시작
- -1993년 첫배당
- -1983-1992 10년의 진통: 어촌계에서 양식, 이익금은 이장이 관리. 이장 등 마을 기록권 세력이 이익금으로 주민들 대상 대부 사업-> 이장 등이 자금이 쌓이자 새마을 금고 설립 추진-> 마을 양식 이익금 이사장과 직원 등의 월급, 운영비로 일부가 독식할 상황-> 어촌계장과 주민들의 반대-> 1993년 대부금지, 새마을 금고 설치 무산, 즉각 배당 시작
- 배당금이 지급 되면서 단 한번도 논란 없었음: 애항심 강화, 어장관리에 적극적이 됨.

## 노동소득 바지락-공동생산 균등분배

- 2020년 바지락 배당: 가구당 1000만원(3개월 동안 10여 회 작업)
- 바지락 양식 소득은 노동에 참가한 사람만 배당 받을 수 있음. 하지만 공동 생산 균등 분배라는 점에서 이 또한 공동체의 모범 사례.
- 장고도 주민들은 쓸물 때가 되면 갯벌 어느 곳에서든 바지락을 캐다. 하지만 마을에서 종패를 부러가며 공동으로 관리하는 바지락 양식장은 정해진 날에만 작업할 수 있다. 가구마다 한 사람씩 작업에 참가한다. 타 지역은 캔만큼 자기 소득. 하루 40킬로 이하 채취가 기준이면 근력이 좋은 사람은 40킬로를 다 캐가지만 힘없는 노인들은 20킬로그램도 채 못 캐갈 수 있다.
- 하지만 장고도는 철저하게 공동 작업 공동 분배다. 한 사람이 70킬로그램을 캐든 20킬로그램을 캐든 모두 모아서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렇다고 부러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은 없다. 힘 있는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양을 캐 뿐이고 힘없는 노인들은 적게 캐 뿐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더 이상 불만이 없다. 자신도 언젠가는 늙을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런 공동작업 공동분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위기도 있었다. 힘이 좋은 젊은 사람들이 한때 불만을 표현했었기 때문이다. 각자 캐는 대로 가져가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 그래서 마을 회의에서 그 방식을 도입해 보기도 결정했다. 그리고 2년 동안 시험해 본 뒤 재 논의 하기로 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각자 캐는 만큼 개인 소득으로 가져가는 방식의 전체 산출량이 공동 작업, 공동 분배 작업 전체 산출량의 70% 밖에 안 나왔다. 공동체 소속감이 적어지자 개인적 사정을 핑계로 바지락 작업에 빠지는 날이 많았던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공동생산 공동 분배 방식으로 바지락 채취도 전환됐고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 2020년 바지락 배당금은 가구당 1000만원. 해삼과 달리 바지락 작업은 노동력이 들지만 바지락은 해삼처럼 진입 장벽도 없다.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채취 가능하다. 소라나 홍합도 많이 잡히는데 이것들은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채취 가능하다.

## 장고도 총소득

- 기본소득+노동소득= 총소득
- 기본소득: 해산전복 양식배당금 1100만원
- 노동소득: 바지락(1000만원)+ 굴, 낙지, 어선 사업 등 (평균 1000-2000만원)
- 장고도 75가구 총소득: 평균 3000-4000만원
- 고령노인 17가구-기본소득 1100만원
- 기본소득 제외 6가구 소득: 평균 3000만원

## 장고도 따라 배우기

- 장고도가 해산물 채취 배당금으로 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자 인근의 섬들도 장고도를 따라 배우고 있음. 그래서 장고도와 같은 보령의 섬들, 외연도 호도, 녹도, 삼시도 등의 주민들도 해산물 양식 배당금을 받고 있음.
- 외연도 7백만, 호도, 녹도 5백만, 삼시도 3백만원 기본 배당. (바지락 등은 별도)

## 외연도 돌김



漁村契名	年度	人数	保證金(百萬圓)		生産量(ton)		收買者	海產費(百萬圓)	備考	
			入札金額	契約金額	合計	海女				潜水機
前島島	2014	14,600			800			102		
	2015	12,000			800			130		
	2016	12,000			804			220		
	2017	14,800			500					
	2018	17,880	100	400	500	72.8	10.2	83	保寧本島	30
	2019	21,940	100	400	500	66.3	3.1	69.4	三浦島	32
外連島	2014	14,020	50					92		
	2015	11,500	50					76		
	2016	12,310	50					98		
	2017	11,000	50							
	2018	20,050	50	350	400	45	35	80	保寧本島	
	2019	20,000			400			100	保寧本島	35
前島	2014	14,000			300			54		
	2015	12,000			300			78		
	2016	12,000			300			78		
	2017	14,200			300			58.6		
	2018	18,200	100	400	500			78	保寧本島	25
	2019	20,000			400			79	保寧本島	20+計20000円
三島	2014	12,000			300			60		
	2015	12,000			300			96		
	2016	12,000			300			72		
	2017	13,700			300			71		
	2018	20,120	100	400	500			50	保寧本島	20
	2019	20,000			400	50	14	66	保寧本島	20

漁村契名	年度	人数	保證金(百萬圓)		生産量(ton)		收買者	海產費(百萬圓)	備考	
			入札金額	契約金額	合計	海女				潜水機
神牛島	2014	13,800			300			55		
	2015	12,500			300			68		
	2016	13,100			400			54		
	2017	13,700			400	40.2	3.8	44	前島	
	2018	18,500	100	300	400			52	三浦島	20
	2019	20,000	100	300	400	51	4.2	55.2	前島	
六代島	2017	15,000			50				前島本島	
	2018	20,000			60				三浦島本島	
	2019	22,000							保寧本島	
	2017	15,000			50				7前島本島	
	2018	18,500			50				6前島本島	
	2019	20,000			50				保寧本島	
青島	2018	21,600			200					
	2019	21,850			100			35.5	中嶺本島	保寧本島 前島本島

## 타 지역 해삼, 전복 양식업 실패 사례

### <통영 추도 해역에 해삼양식업 조성사업>

- 국비 30억 투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위탁 추진
- -자연석(5,479㎡), 인공어초(850개), 해조장 등 시설비로 대부분 낭비- 해초가 자랄 수 있도록 바다 속 쓰레기 치우고, 해삼의 먹이가 될 채초 이식 등에만 투자해도 됐을 텐데 불필요한 시설에만 예산 낭비.
- -종패 투입으로 자란 해삼들도 해적들(불법 잠수부)이 쌀슬이
- -배당금 0원

### <통영 두미도, 연대도 등> 해삼, 전복 방류 사업도 실패>: 해적들(불법 잠수부)의 악랄

- -정부의 일방적 행정과 해경의 단속미비로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
- -주민주도, 관의 협조 방식으로 바뀌어야-장고도로부터 배워야
- **대다수 어촌계가 공동 양식장 업자에게 임대:** 어촌계 직영 개혁, 지원 필요-군산: 선유도 사례(기존 어촌계와 개혁 세력 대립 중)

- 해수부 어촌뉴딜 300: 300개 어촌, 섬마을에 100억씩 지원: 관광사업, 선착장 보수, 물양장 만들기 등 토목->토목업자, 부유층만 더 부유해지게 만드는 사업



## 결론: 장고도 모델 농어촌 사회 확산 실험 필요

- 노인들도 정년 걱정도 없이 경제적 불안 없이 생활이 보장 되는 장고도. 이 기본소득 시스템을 섬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기적. 정부나 지자체가 못한 것을 섬 주민들이 이루어낸 것. 장고도 주민들이야말로 섬 재생의 전문가들이고 어촌 뉴딜의 정책가들. 정부가 장고도로부터 배워야 한다.
- 어촌 뉴딜 등 토목으로 쓰는 예산->기본소득 실험예산으로 전환 정책 변화 필요.

**발제3 | Speech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The Social Experiment Design of Basic Income  
in Rural Areas in Gyeonggi-do**

---

**이창한  
지역재단 기획이사**

**Lee Chang-han,  
Planning Director, Korea  
Regional Development Foundation**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연구



이 창 한(지역재단 기획이사)

## ◆ 목차

-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농촌의 특성과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의미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비전, 목표, 가설
-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방안
  - 농촌기본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절차 및 거버넌스
-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평가지표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전 및 사후 조사방법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대효과
- 4. 향후 연구 및 논의 쟁점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1)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배경

- 기본소득은 경기도 민선 7기 핵심 정책 : 관련 조례 제정,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시대적·국민적 의제로 부각 예상 : 국내외 여론을 선도하는 경기도

[경기도 시군별 맞춤형 기본소득 교육 웹 포스터]

[WSJ에 소개된 경기도 기본소득 지역화폐]



자료 : 경기도 포워드

자료 : 알스프리프 저널(WSJ) 홈페이지

3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 [필요성 1] 인간의 삶의 존엄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전환 사회실험

- 해외의 기본소득(사회실험) 사례 : 빈곤층 및 실업자가 주된 대상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은 국내외에서 일정범위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고 모든 원칙을 충족하는 최초의 시도, 보편적 기본소득 축소판으로 중요한 의미
- 정책효과 평가를 통해 향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확장 가능한 모델 개발

[기본소득(사회실험) 해외사례의 기본소득 원칙 충족 여부 비교]

지역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바르셀로나	X	○	○	○	○
온타리오 주	X	○	○	○	○
핀란드	X	○	○	○	○
브라질 마리아시	△	○	○	○	○
스코틀랜드	○	○	○	○	○
독일	X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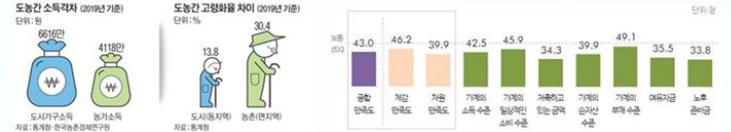
4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 [필요성 2]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완화(통계청 자료)

-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율 62.2%(2019년 기준)
  - 도시가구소득(2인 이상) : 6,616만원 → 2018년 6,418만원(200만원 ▼)
  - 농가소득 : 4,118만원 → 2018년 4,206만원(88만원 ▲)
- 도시가구와 농어촌가구 월 생활비 격차 53만원(2018년 기준)
  - 도시지역 월평균 생활비 217만9천원
  - 농어촌지역 월평균 생활비 164만원

[농어촌가구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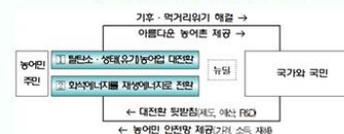
5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 [필요성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기본소득 실험: 저밀도 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 '농촌'

- 농촌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인간과 자연의 분리, 생태적 균열과 위기 등에 대응할 역할을 가진 공간으로 다시 주목(기후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한 그린뉴딜 논의 활성화)
- 농촌기본소득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농촌 자체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는 동력 형성 가능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의 주요 내용]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020), 농어업농어촌 분야 뉴딜의 비전과 과제

[OECD 저밀도 경제 활성화 사례 시사점]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저밀도 경제 기반의 농촌산업 활성화 방안, 영상보고서

6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의미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개념 및 원칙

- '경기도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으로 설정
-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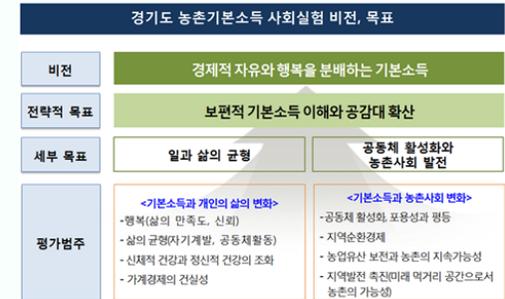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본소득 설계 원칙]

구성요소	내용	농촌기본소득	인정
보편성	모든 사회구성원 대상 (영주내 구성원)	일정 범위 지역 모든 구성원 지급 (사회실험영역감안)	○
무조건성	노동, 구직활동 여부 관계 없음	조건 없음	○
개별성	개개인에게 지급	개개인에게 지급	○
정기성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주기로 지급	월 1회 지급	○
현금성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	현금성 화폐(지역화폐) 지급	○

7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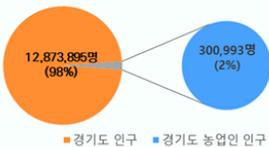
9

## 0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왜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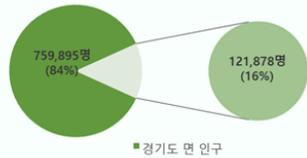
#### ◆ 농촌지역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이지만 다양한 직업 군 대상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실험' 성격

- 경기도 농촌은 타 지역 농촌과 특성이 상이하여 도시형 지역과 도-농 복합형 지역이 대부분
- 경기도는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읍-면의 규모가 큰 것이 특징
- 면 전체 인구 중 농업인 비중은 16%

[경기도 인구 대비 농업인 인구]



[경기도 면 인구 대비 농업인 인구]



8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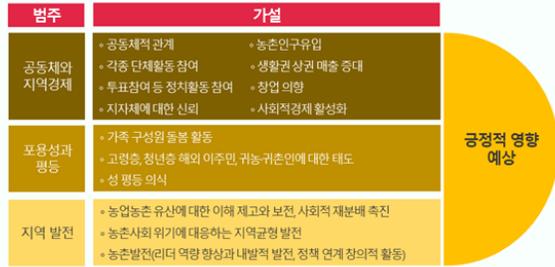
#### ◆ 세부 목표 1 : 일과 삶의 균형(3개 범주, 12개 가설)

범주	가설	긍정적 영향 예상	
행복과 삶의 질	- 자신의 일에 대한 몰입 - 인적 자본 향상, 자기개발 - 사회경제적 활동 안정		- 삶의 질 향상(교육, 문화 활동) - 주거환경 개선 - 안전한 농업노동 환경
건강 (신체, 정신)	- 신체 건강 개선(건강행동, 유병률 저하, 건강상태 인지, 건강면 식행동) - 정신건강 개선(자존감 향상, 우울감 개선, 미래 장기계획 실행)		
가계경제 건실성	- 적극적인 일자리 참여 - 사회생활비 지출 증가	- 가계소득 변화 - 가계 경제의 건실성	

10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세부 목표 2: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사회 발전(3개 범주, 14개 가설)



11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적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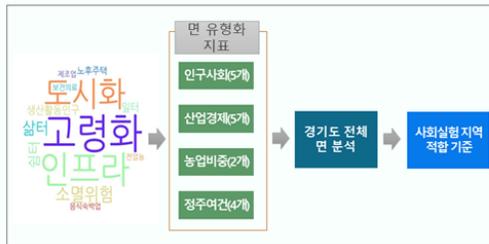
지표	지표의 범위	비고
인구 수	면 인구 수 3,000명 ~ 7,000명	7,130명이 2019년 말 기준 면 평균 인구 규모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0.2 ~ 0.5	소멸위험진입단계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 189.8 ~ 425.0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고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20.4% ~ 28.3%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농업인 비율	농업인 비율 12.4% ~ 27.2%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제조업종사자 비율	제조업종사자 비율 11.3% ~ 59.1%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음식숙박업종사자 비율	음식숙박업종사자 비율 4.9% ~ 17.6%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도시적 토지이용률	도시적 토지이용률 5.6% ~ 15.0%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병의원 및 약국 판매업 대비 총 인구수	671.0 ~ 1,989.5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사회복지시설 대비 총 인구수	493.5 ~ 848.3	백분위 기준 25~75% 사이

13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 ◆ 경기도 농촌환경 분석 과정



12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지표 및 지표별 범위 충족면수



14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대상지역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1안) 10개 지표 중 7개 이상 충족하는 27개 면 지역 중 1차 서류평가(정량평가), 2차 종합평가(정성평가)통해 선정
  - 27개 면 지역 중 사회실험 참가 의향이 있는 면에서 대상지역 선정 신청
    - : 지역 현황표 작성 제출 후 심사, 3~4개 면 선정 후 2차 평가로 최종 선정(발표 및 평가)
  - 사회실험 정책효과 향상(공동체성 향상을 통한 새로운 변화 시도 등)
- 2안) 사회실험의 엄밀성을 위해 적정 인구수, 소멸위험지수 등을 기준으로 적정 면 지역을 대상으로 20~25개 행정리 무작위 추출
  - 사회실험의 엄밀성 충족, 지역 내 갈등 최소화 가능

15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미 지급 대상자

구분	대상자 분류	지급여부
미 거주자 및 위장전입	대학생군인등일시미거주자	- 지역화폐 사용 불가 및 정책 효과 측정 불가
	해외 장기 체류자	- 상동(단, 영구 귀국으로 대상지역 거주 시 지급)
	타 지역 장기 요양자	- 상동(단 장기요양 중단으로 대상지역 거주 시 지급) (단기요양 병월 입원자 예외는 지급)
전출자 및 사망자	거주 불명자, 위장전입자	- 상동(거주 불명자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 사항 정정 및 대상지역 거주 시 지급)
	신청일 이후 전출자	- 상동(타 지역 전입신고일 기준 익월부터 지급 중지)
	사망자	- 상동(사망신고일 기준 익월부터 농촌기본소득 미지급)

17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4)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대상자 기준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 대상자

구분	대상자 분류	지급여부
실 거주기간 및 연령	주민등록상 실 거주자	- 신청일 개시 기준 대상지역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모든 연령 지급
	미성년자	-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및 수령
	대상지역 신생아	- 출생신고일 기준 익월부터 지급
이주자 및 외국인	타 지역에서 이주자	- 사회실험 기간 중 이주해온 자에게 지급(전입신고일 익월부터 지급)
	대상지역 거주 외국인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 - 외국인 근로자 지급(체류지 거주등록자, 대상지역 사업장 고용 근로자)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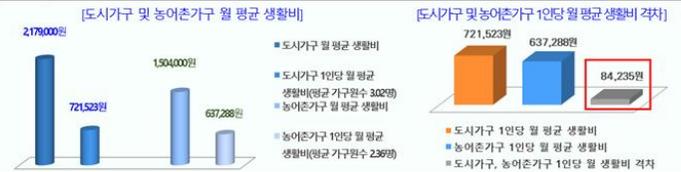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5)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 ◆ 도시가구와 농어촌 면 지역 가구 월 생활비 격차(농촌진흥청,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국가통계포털)

##### • 1안 : 월 10만원 지급

모델안	지급금액 설정 모델 구분	지급금액 기준	월 지급액	연간 소요 자원
1안	도시가구와 농어촌가구 면지역 가구 1인당 월 생활비 격차 지급	(도시가구 1인당 월 생활비 721,523원) - (농어촌 면 지역 가구 1인당 월 생활비 637,288원) = 84,235원(보정금액 15,765원)	월 10만원 (연 120만원)	3인명 : 36억원 5인명 : 60억원 7인명 : 84억원



18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6)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 ◆ 농어촌 읍 지역 가구와 면 지역 가구 연간 소득격차(농촌진흥청, 2019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보고서; 국가공식 통계)
  - 2안: 월 15만원 지급

모델안	지급금액 설정 모델 구분	지급금액 기준	월 지급액	연간 소요 자원
2안	농어촌가구 읍지역 가구와 면지역 가구 연간 소득격차	(읍 지역 가구 연간 소득 2,343.3만원) - (면 지역 가구 연간 소득 1,923.7만원) = 419.6만원 ÷ 2.36인 ÷ 12개월	월 15만원 (연 180만원)	3천명 : 54억원 5천명 : 90억원 7천명 : 126억원

읍 지역 가구 및 면 지역 가구 연간 소득격차



[농촌기본소득 지급금액 2안 도출 방법]

$$4196000 \text{원} \div 2.36 \text{인} \div 12 \text{개월} = 148,163 \text{원}$$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8)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 ◆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급액 모델
  - 1안: 월 30만원 지급
  - 정원호·이상준·강남훈(2016) :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의 근거를 들어 월 30만원 제안

모델안	지급금액 설정 모델 구분	지급금액 기준	월 지급액	연간 소요 자원
1안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급여 감안 1인당 기본소득 금액 산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중 인구비중이 가장 많은 4인 가구 1,424,752원 ÷ 4인 = 356,188원(20년 기준) (기초연금 월 25만원 ÷ 20년 기준)	월 30만원 (연 360만원)	3천명 : 108억원 5천명 : 180억원 7천명 : 252억원

[농촌기본소득 전문가 제안 지급금액 1안 도출 방법]

$$20 \text{년 생계급여 } 4 \text{인 가구 } 1,424,752 \text{원} \div 4 \text{명} = 356,188 \text{원}$$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7)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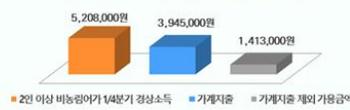
- ◆ 농가와 2인 이상 비 농림어가 가계소득 격차(2019년 통계청 자료)
  - 3안: 월 20만원 지급

모델안	지급금액 설정 모델 구분	지급금액 기준	월 지급액	연간 소요 자원
3안	농가와 2인 이상 비 농림어가 가계소득 격차	* 2인 이상 비 농림어가 1인당 가용금액 46.7만원 (141.3만원 ÷ 3.16인) * 농림어가 1인당 가용금액 -27.3만원 (농가가용금액 -771.5만원 ÷ 2.36 ÷ 12개월 ÷ 3.16인)	월 20만원 (연 240만원)	3천명 : 72억원 5천명 : 120억원 7천명 : 168억원

[농가 소득 대비 가계지출 및 가용금액]



[2인 이상 비 농림어가 소득 대비 가계지출 및 가용금액]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9)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금액

- ◆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급액 모델
  - 2안: 월 50만원 지급
  -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7) : 생계급여 기초하여 월 50만원 제안(17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 수준)

모델안	지급금액 설정 모델 구분	지급금액 기준	월 지급액	연간 소요 자원
2안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기본소득 금액 산정	1인 가구 중위소득 1,757,194원의 30% = 527,158원	월 50만원 (연 600만원)	3천명 : 180억원 5천명 : 300억원 7천명 : 420억원

[농촌기본소득 전문가 제안 지급금액 2안 도출 방법]

$$20 \text{년 } 1 \text{인 가구 중위소득 } 1,757,194 \text{원} \times 0.3 = 527,158 \text{원}$$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10)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지급방법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급방법: 지역화폐로 매월 초 지급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지급방법은 사회실험 목표를 감안하여 **경기도 지역화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
- 대상지역 상권 매출확대와 지역 공동체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다만 단위농업 사용제한 해제 필요

#### ◆ 경기지역화폐는 왜 필요할까요?



살아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료: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

도민의 행복지수 up! up!

상생하는 우리동네, 우리지역!

23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12)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절차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절차 전 과정



25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11)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간(지급기간)

####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간 2년 제한

- 사회실험의 특성과 해외 사례, 경기도내 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과 민원 등 고려, **사회실험 기간 2년 간 추진 제한**
- 2년 정책효과를 측정하여 장기효과 예측
  - 기본소득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배우고 적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음
  - 기본소득을 처음 받은 직후 충격효과, 계속 받으면서 동화효과, 다른 측면에서 학습효과 존재
  - 사회실험 종료 후 사회적 충격 존재 가능
- 이런 이유로 사회실험 기간은 1년 이상, 2년이 합리적(Guy Standing, 2017)
- 향후 선거 일정 등도 고려
  - 핀란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처럼 기본소득 사회실험 중간 종료 시 정책 효과 측정 불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 초래

24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 대상지역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분야별로 추천 및 공모를 통해 구성
- 위원회 구성 : 총 20명 규모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 호선)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공모 선정위원회 구성안

분야	기본소득	경제정책	농촌정책	균형발전	사회복지	행정 및 의회
선정인원	3	3	3	3	3	5
선정방법	추천 및 공모					

#### ◆ 1차, 2차 과정을 통해 대상지역 선정

- 1차 : 서류 및 종합평가를 통해 2~3개 면 지역 선정
- 2차 : 오디션 방식으로 최종 대상지역 선정

26

## 02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 13)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거버넌스

####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거버넌스 및 주체별 역할



27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1)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평가지표

#### ◆ 지표의 범주 : 6개 범주, 48개 지표

범주	영역	세부지표
공동체 활성화 및 포용성과 평등	공동체 활성화	- 농촌지역사회 소속감 - 기부 및 기금 활동 참여 - 시민사회단체 참여 - 사회적 관계망 확장(질과 범위) - 농업유산 보존 활동 유무 - 인구유입 정도
	포용성과 평등	- 가족과의 관계(가족 돌봄) - 고령자·장애인·이주 외국인·귀농 귀촌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 빈곤층에 대한 도움 - 세대 간의 포용성(장년층, 장년·노년층) -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배 -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와 배려
		- 공동체 활동 참여 - 마을 등 의사결정의 참여 - 교육·문화 활동 참여 - 농업유산에 대한 인식

29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1)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평가지표

#### ◆ 지표의 범주 : 6개 범주, 48개 지표

범주	영역	세부지표
행복	삶의 만족도	-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 행복감 정도 - 본인의 일에 대한 가치 만족도 - 우울감 정도 -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신뢰	- 타인에 대한 신뢰 - 정치인에 대한 신뢰 - 공무원에 대한 신뢰 - 정책에 대한 신뢰 -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도 - 선거 참여여부 -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지지여부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존재 유무와 달성 수준 - 자기개발 활동 여부 - 미래에 대한 자신감(미래에 대한 계획 여부) - 안전한 농업 및 노동활동

28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범주	영역	세부지표
경제활동	지역순환 경제	- 생활권 상권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상승효과 - 공동체형 창업(6차 산업, 사회적경제 등)
	가계경제건실성	- 사회생활비 지출 - 적극적인 일자리 참여 - 가계경제의 건실성 - 경제적 상황에 대한 자신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조화	- 주관적 건강수준 - 진료횟수 - 건강한 식생활 - 불안과 걱정 정도	
지역발전	- 지역리더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 여부 - 각종 정책(중앙정부, 경기도, 시·군)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프로그램 추진 여부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 노력	
		- 유병율 여부 - 의료비 부담 정도 - 스트레스 정도

30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2)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 ◆ 과학적 정책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방법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4)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중 LM3 측정 방법

##### ◆ 지역경제순환효과 측정(LM3 측정 방법) : 농촌기본소득 지역화폐 지급 효과

- 1단계: 먼저 사업체나 사업체 구성원들의 초기 수입금액으로 대상기간과 범위를 정한 후 세부 지출항목으로 구분
- 2단계: 사업체의 지출을 지역 내 지출과 지역 외 지출로 나누어 추산
- 3단계: 사업체와 사업체 직원이 수입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파악
- 이렇게 계산된 1, 2, 3단계에 이르는 금액을 합하여 총액을 1단계의 최초 수입금액으로 나눈 값이 LM3값

$$LM3 = \frac{\text{Round 1} + \text{Round 2} + \text{Round 3 (지역+공급업체)}}{\text{Round 1}}$$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3)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효과 평가 방법 중 주민조사 방법

01 • 대상지역 설문: 최대한 많은 주민, 비교지역: 95%신뢰수준, ±3.0%  
•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총 3회 실시: 사전, 중간, 사후

02 • 포커스그룹 인터뷰: 행동변화의 원인 파악, 10~20명 조사

03 • 월례조사: 반응형 웹 활용 변화 흐름 파악, 대상지역 또는 조사표본의 10%

(비교지역 설문조사 참가자 이탈율 고러한 표본 수)

구분	모집단수	이탈율				
		0%	5%	10%	15%	20%
비교지역	3,000명	788명	827명	867명	906명	946명
	5,000명	880명	924명	968명	1,012명	1,056명
	7,000명	927명	973명	1,020명	1,066명	1,112명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 5)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기대효과



### 03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정책 효과 평가



35

### 04 향후 연구 및 논의 쟁점

#### 1) 기본소득(농민, 농촌) 필요성에 대한 축출한 논리와 사회적 합의 과정

##### ◆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사회전환과 기본소득

- 한국사회 부의 편중과 불평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갈등 요소
-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19라는 복합적 요인으로 사회적 위기감 고조
- 위기극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사회전환 필요
- 사회전환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정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전환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여기에 농민, 농촌기본소득 논의 탑재
- 농민, 농촌기본소득 도입이 국가와 국민 차원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명확화 필요

36

### 04 향후 연구 및 논의 쟁점

#### 2) 기본소득을 통한 생산주의 농정 탈피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 농민, 농촌기본소득으로 생산주의 농정 탈피와 지역균형발전 촉진이 어떻게 가능한가

- 농업농촌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주체인 농민과 농촌주민에 대한 직접적 소득지원은 농업생산을 위해 자원을 착취하고, 농촌을 먹거리 생산의 기지로만 사고했던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 나려는 시도
-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제기(박경철, 2020)
- 2017년 리스본에서 열린 BIEN 17차 총회에서 연구자들은 농업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의 전환적 잠재력을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혁신적 먹거리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Ambühl et al., 2017)
- 연구자들은 '농민을 위한 기본적 복지 체계를 만드는 것은 현행 먹거리 보조 체계를 바꾸로 생산주의 농식품 패러다임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본소득을 통해 농업농촌 문제뿐 아니라 먹거리체계 접근에까지 이르고 있음

37

### 04 향후 연구 및 논의 쟁점

#### 2)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존 농업-농촌 정책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며, 재원마련 방법은?

##### ◆ 농업-농촌이 한국사회에 어떤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EU에서 농업기본소득(agrarian basic income) 혹은 농촌기본소득(rural basic income) 논의는 모두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구상 및 예산(농업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과 밀접하게 연계. 기본소득의 논의가 항상 재원 마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EU 총 예산의 40% 정도가 투입되는 CAP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됨
- 2012년 뮌헨에서 열린 BIEN 14차 총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당시 발표자는 농촌개발을 위한 유럽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 내에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할 것을 제안
- 이를 통해 ①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 중단, ② 농촌 부흥을 위한 경제, 사회, 문화적 기획을 지원, ③ 소득 증진을 위해 생태를 훼손하는 대규모 영농으로부터 탈피하는 계기 제공, ④ 소수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사회정치적 기여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

38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9

**토론1 | Panel1**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점검**

---

**박경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Park Kyung-cheol**  
**Director, Chungnam Research Institute**

제1회  
농촌기본소득 정책포럼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쟁점

박 경 철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2021. 1. 29

**발표 내용**

1.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2.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3.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비교

# 1.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 농민기본소득의 개념

✓ **기본권적 성격: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 및 소외된 농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삶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좀더 '특별한 의미'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우선 배려

- 기본소득을 농민에게 우선 지급
-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

✓ **보상적 성격: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약 252조원(농진청, 2012)**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규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9조, 44조~6조
- (1)식량의 안정적 공급 (2)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3)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5)생태계의 보전 (6)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그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출처: 팜인사이트(2018.3.9)

## 농민기본소득의 배경

### 시장개방 확대로 농민의 삶 파탄

- 농업시장 개방의 가속화: **대부분의 농업선진국과 FTA 체결**
  - 현재까지 16건 57개국과의 FTA체결
  - 1993년 UR, 2004년 한·칠레FTA, 2008 한미FTA, 2015년 한중FTA 체결
  - 우리나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2019. 10. 25)
- 농민인구 급감: 1,083만('80)→224만('19) **전체 인구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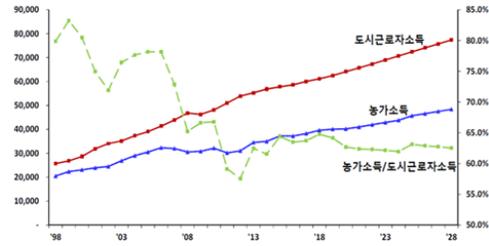


자유무역협정 발효 현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농업농촌의 핵심문제: 소득불평등

### ▪ 도농 간 소득격차 지속 확대

• 2018 64.8%→2028년 62.5% 예상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19

7

## 농가경영 악화 심화(소득보다는 부채 증가)



농가소득



농가부채

8

## ▪ 농가인구의 지속적인 하락

• 전국: 2010년 3,062,956명→2018년 2,314,982명으로 24.4% 감소

## ▪ 농업인 고령화(65세 이상) 지속 증가

• 전국: 2010년 21.7%→2018년 44.7%로 23.0% 증가



자료: 통계청, 이수생 통(2019)

##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농촌 문화, 경관, 환경을 지키는 농민의 삶을 보장한다.



### 농업예산 중 직불금 비중:

- EU 71.7%,(2016) 스위스 85.5%(2016), 일본 33%(2015), 우리나라 17%(2018추정)

주요 광역자치단체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추진 현황

지사체명	명칭	내용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2021년 도내 참여 희망 4개 시·군 농민 1인당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 계획. *여주시는 2020년 농민수당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2021년부터 농가(10만4천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예정. 양구군은 2020년 농민수당 35만 원 지급 예정
충남도	농어민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16만5천 가구)당 연간 80만 원 지급(상반기 45만 원, 하반기 35만 원)
충북도	농민수당	2020년 9월 조례 제정, 2021년부터 농가당 50만 원 지급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조례만 제정하고 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 미정 의령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 예정
경북도	농어민수당	도 차원에서 조만간 조례 제정 예고, 2022년 도입 예정 *봉화군은 2019년 60만 원, 2020년 70만 원 지급, 청송군은 2020년에 50만 원 지급, 그 외 영양군, 청주군도 농민수당 준비 중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어가(24만3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장진군은 농업인경영안정자금 이통으로 2018년부터 농가당 70만 원 지급, 해남군은 2019년에 농민수당 이통으로 농가당 60만 원 지급
전북도	농민공익수당	2020년부터 농가(10만2천 가구)당 연간 60만 원 지급
제주도	농민수당	2020년 조례 제정, 2022년 1월에 농가(5만5천 가구)에게 지급, 역수 미정

## 2.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 **기본권적 성격: 산업화 과정에서 배제 및 소외된 농촌주민의 기본생존권 보장**

- 공업화, 도시화, 개방화 과정에서 배제되고 희생되어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주민에게 국가와 사회가 그들의 삶을 보장해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 좀더 '특별한 의미'의 기본소득

▪ **기본소득을 농촌주민에게 우선 배려**

- 기본소득을 농촌주민에게 우선 지급
-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의무
-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 **보상적 성격: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성을 위해 일정한 수준의 금액을 농촌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약 252조원(농진청, 2012)**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관련 법규**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9항, 9조, 44조~6조
- (1)식량의 안정적 공급 (2)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 (3)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4)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 (5)생태계의 보전 (6)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 **농촌주민을 '국토지킴이'로 인정하고 그들에게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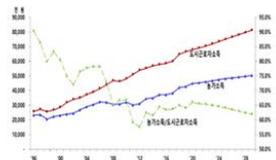
그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체계도  
출처: 팜인사이트(2018.3.9)

## 농촌기본소득의 배경

-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만성적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립, 세종특별자치시,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건설
-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추진 중
  - 교통 등 인프라시설 확충
  - 주요 사업 예타 면제
  - 도시 재생, 생활SOC사업 등
- 하지만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국가균형발전은 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킴
- 농촌의 인구 감소의 핵심은 소득 감소, 그러나 농촌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임

-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확대
- 농촌지역 인구 감소 가중 →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기 가중

[그림] 도농 간 소득 격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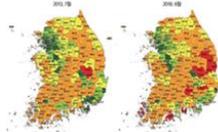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 '지역개발조사', 농가경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S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202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2020

➢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농촌 기본소득제 도입

[그림] 전국 시군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2018, 지방소멸지수

30년 후엔 시군구 절반 없어진다...코 알 락진 '지방소멸'

f t 2020.06.10 14:00:00 112122 112122 112122 112122

지역이어서 4년간 100%가 소멸할지라도  
30년 후에는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6월 10일 14:00:00  
지역이어서 4년간 100%가 소멸할지라도  
30년 후에는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6월 10일 14:00:00

##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과의 관계



## 3.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비교

농민기본소득과 농촌기본소득의 쟁점 비교

비교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	미등록 농가 및 은퇴농민 포함 여부 각종 수당 수급자 포함 여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여부 각종 수당 수급자 포함 여부
지급 범위	도시 거주 출입농 지급 여부	읍지역 농촌주민 포함 여부
적정지급액	월 5만원~30만원	월 5만원~30만원
재원	농정예산 조정 추가 예산 마련	지역개발사업 예산 국토보유세 균형발전특별세 등
중복지급	공약직불제: 기본직불 농가당 120만원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의 관계 설정
도시민 지지	농민에 대해 이해 및 지지 명확	농촌주민 지급에 대한 이해 및 지지 부족
담당 주체	지자체 농정국 농림식품부	지자체 농정국/인구정책국/기획실 총리실/국토부/행안부/농림식품부

감사합니다!!

토론2 | Panel2

마을공동체의 농업 경영 복합체 기반  
주민소득 창출 이야기

이수인

경기도 포천 '장독대마을' 대표

Lee Su-in

CEO, Kyodong Village 'Jangdok'

## 기본소득과 함께하는 장독대마을

미래의 농업,농촌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 여유가 있는 삶

옛 말에 나무가 우거진 마을은 부자 마을이라고 한다.

나무가 크고 우거질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죽 집주변의 나무를 떨감으로 여기지 않을 여유가 있는 삶은

공감,공유,배려가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이다.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주변을 돌아 볼수 있고 나 뿐만 아니라 이웃과 공간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마을 공동체는 이러한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결합 될 때

수익의 창출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공동체는 하나가 된다.

그동안 장독대마을은 큰 이슈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초를 만들었고 마을의 균형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형성해 왔습니다.

농촌이란? 농업,농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공유재 자원입니다. 그 자원을 도시민이 함께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으며 장독대마을 환경,문화,체험 공간조성을 통해

도시민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 마을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농촌이 간직한 자연경관과 마을주민들의 생활공간,농업이 치유의 가치로 승화되는 기회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장독대 마을기업은?

목적:수몰민과 귀촌인의 생활,경제공동체

연혁: 2006년이전 교동마을(전국최초 팜스테이마을 지정->농협중앙회)

2006년 한탄강댐 고시

2007년 새로운 마을구성을 위한 공개모집

2009년 마을 조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

2010년 마을 조성시작(녹색농촌 체험마을지정->농림식품부)

2011년 체류형주말농장,체험관 건축,항아리 구입(600개)

2012년 마을기업 지정->행안부(시집은 곱감 상품화)

2013년 소득사업을 위한 누에사육장 사업신청-농촌진흥청

2014년 누에사육장 및 식교육 체험장 건축

2016년 오디와 누에 테마파크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농촌진흥청)

2017년 공동작업장 건축

2018년 멜베리카페 오픈

수상:2014년 도농교류 우수마을 마을대표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전국최우수 마을기업수상,농촌마을 소득분야 농식품부장관상

2019년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은상 수상,마을사무장 국무총리 상

경기도 최우수체험마을 수상

2020년 마을대표 공동체육성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정량적 성과: 마을 연금 시행년 6~7명(각 60만원), 학생장학금 4명(각 50만원)  
 정성적 성과: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의 전환 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와 역할수행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연금과 장학금을 통해 마을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자부심과 마을에서 부모님께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도시에 살고있는 자녀들이 마을에 관심을 보이며 마을 사업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은 우리사회에 새로운 "정"이 싹트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을공동체는 계획보다 왜(why) 사업이 필요한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본소득과 함께하는 장독대마을

옛 말에 나무가 우거진 마을은 부자마을이라고 한다.  
 나무가 크고 우거질 만큼의 여유가 있다는 의미다.

여유가 있는 삶은 공간, 공유, 배려를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이다.  
 공동체가운데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구성원들에게 돌아올 때 공동체는 해가 된다.

\*장독대마을 삶버 사업연급  
 \*목적: 수물민과 귀촌인의 생활, 경제공동체 구성  
 \*시행: 2018년 현재까지  
 \*대상: 70세 이상 어르신 학생  
 \*정량적 성과: 각 60~50만원 지급(200명) 학생 50만원 지급(4명)  
 \*정성적 성과: 생활공동체에서 경제공동체로의 전환과정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의식 고취와 역할수행

큰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구성원들은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마을에서 부모님께 관심을 가져달라는 사설은 도시어 있는 자녀들에게 마을 공동체사업이 긍정적으로 비춰지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사회에 새로운 "정"이 싹트는 것이다.

미래의 농업·농촌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요?  
 -> 여유가 있는 삶

## 토론3 | Panel3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탐색

문보경  
 경기도 사회적경제센터장

Mun Bo-kyung  
 Director, Gyeonggi Province  
 Social Economy Center

---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 탐색

---

2021. 1. 29  
문보경(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 1. 탐색 하나. 농촌기본소득인가 농민기본소득인가 ?

- ❶ 경기도에서 제정하려는 조례안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바는 현재 입법예고 중임.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농민"이란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농민기본소득"이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과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 ❷ 반면 발제문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을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의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개별적이며, 정기적이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책'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❸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이 다양할수록 공동체 활동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2. 탐색 들, 3개 범주, 14개 가설 중 과도한 점은 없는가?

① 농촌기본소득은 공동체와 지역경제, 포용성과 평등, 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에 입각해 있음. 특히 외부로부터 유입된 계층에 대한 포용적 태도는 흡사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속담의 맥락이며, 기본소득의 취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 봄.



② '창업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공동체 활성화에서 말하는 창업은 '공동체형 창업'이라고 발제자의 연구보고서(2020. p208)에서 전제 하고 있음.

- 기본소득은 개인의 직업과 직장 선택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어 '개인 창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유대감이 높아지고, 상호 신뢰가 강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공동 창업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소득의 수준에 따라 (공동)창업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봄. 최소생활이 보장되는 경제적 여건은 '기업형 비즈니스'를 위한 결사보다는 '타임뱅크' 혹은 '품앗이' 활동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음.
- 또한, 다른 가설에 비해 (공동)창업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실험 기간에 (공동)창업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참여도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지 않으면 가설이 갖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 봄.
- (공동)창업 의향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기본소득과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임. 따라서 현재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구성원의 기업 활동 참여도 변화와 조합원의 증가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 함.

3. 탐색 셋, 촉진 그룹의 존재유무는 실험의 변수가 될 것인가?

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치 현황>

연번	시군	방식	사회적경제지원센터(통합)	마을공동체지원센터
1	가평군	직영	-	가평군마을공동체통합지원센터
2	고양시	위탁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3	과천시	직영	과천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4	광명시	직영	광명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광명시마을공동체센터
5	광주시		-	-
6	구리시	직영	구리시공동체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7	군포시	위탁	군포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통합
8	김포시	직영	김포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포시자치공동체센터
9	남양주시	직영	남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남양주시자치참여센터
10	동두천시		-	-
11	부천시	직영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부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12	성남시	직영	성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남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13	수원시	위탁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수원시마을트레상스센터
			수원시지속가능한 재단에서 위탁, 센터 분리 운영	
14	시흥시	위탁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5	안산시	위탁	안산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안산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16	안성시	직영	안성시통합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5월 설치예정)
17	안양시	직영	안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18	양주시	직영	양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19	양평군	직영	어울림통합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0	여주시	위탁	여주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1	연천군	직영	-	연천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22	오산시	직영	오산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3	용인시	위탁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용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24	의왕시	직영	-	의왕시도시재생지원센터(마을통합)
25	의정부시	직영	의정부시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6	이천시	직영	이천시행복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7	파주시	직영	파주시사회적경제희망센터	-
28	평택시	직영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29	포천시	직영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	사경+마을공동체 통합
30	하남시	위탁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남시마을공동체협동조합지원센터
31	화성시	위탁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화성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	위탁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 ② 시·군의 지원센터들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운영, 주민들과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지 않음.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13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목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③ 따라서 대상지 선정에 있어 통합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 지역, 아무 곳도 없는 지역을 각각 선정해 결과치를 비교해 볼 수 있다면 기본소득 정책 실행에 있어 필요한 환경 요인까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토론4 | Panel4**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Lee Ji-eun**

**Chairperson,**

**Basic Income Young Researchers Network**

##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의미와 쟁점

이지은 (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 1. 사회실험의 한계와 효용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한계와 효용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몇 몇' 효과를 입증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Widerquist, 2018<sup>1)</sup>).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과장된 기대나 해석은 결과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험종료 이후 정책 실현단계에서 오히려 걸림돌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실험에서의 기본소득 모델과 이념형의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과는 구분하여 논의·해석될 필요가 있다. 실험에서의 기본소득 몇 가지 효과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UBI의 효과 일반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 '제한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실험집단에 대한 정책개입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뿐이다. 반면, UBI의 효과는 적어도 국민국가 단위에 속한 모든 사람에 대한 장기적 실험이라는 조건 속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우리는 사실상 알 수 없다. 보다 거칠게 말하면, 권리투쟁으로서 UBI 실현으로 가는 길에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사회실험'의 효용은 무엇인가? 1차적 효용은 기본소득의 몇 가지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기반하여, 일반대중의 '심리적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사실상 더욱 중요한 2차적 효용일 것이다. 가령,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실험결과가 도출된다고 했을 때,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실험결과와 무관하게 이에 대한 해석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과 노동의 범주', '생산과 재/분배', '사회적 시간의 재구성' 등과 같이 기본소득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제기들은 반드시 정치·사회적으로 충분히 토론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실험은 이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 실험이 자동적으로 UBI에 대한 공론장을 확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 수혜자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을 받아 써버리면 그만이다. 오히려 실험과정에서 충분히 논쟁적일 수 있는 '윤리적 쟁점'들을 '공개토론' 등을 통해 다루면서, 다양한 위치에 있는 지역민들의 욕구와 입장을 확인하고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추후 실험 결과를 환류 할 때, 상이한 이해도에 따른 해석의 다양성에 대응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을 통해 행정적 인프라 형성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1) Widerquist, K. (2018). *A critical analysis of Basic Income experiments for researchers, policymakers, and citizen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확인함으로써, 추후 기본소득의 행정적·제도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요약하면,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의 '심리적·제도적 실현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UBI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 사회실험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좋은 삶에 대한 가치', '노동에 대한 인식',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 효과' 등은 정량적 조사보다 훨씬 더 관찰하기에 복잡하며, 따라서 질적 조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질적 연구를 통해 '숫자'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잠재적) 효과'들을 포착할 수 있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질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가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질적 연구 경험을 비취보았을 때, '기본소득'이라고 불리는 '낮선 돈의 출현'이 이를 받는 청년들에게 '물음표'로 남았고, 각자 물음표를 '느낌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세계들'을 탐구하면서, 기본소득이 심문하고 있는 개념과 범주들을 귀납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뷰에서는 '청년'의 서사 속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경험을 논의하는 가운데, 일과 노동, 생산과 분배, 개인과 사회, 의존과 권리 등을 재/해석하고 나아가 대안적 사회에 대한 상상으로 논의를 확장하였다. UB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사회전반에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상에 대한 더욱 풍부한 토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실험은 이를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 2. 기후위기 시대,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가치

팬데믹 시대에 '농촌기본소득' 실험은 분배정의를 넘어선 기후정의(climate justice)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경험을 통해, 인류는 생태위기가 일시적 재난이 아니며 현대 자본주의에 내재된 '역사적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즉, 우리는 '생태적 지속가능성 없이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중국에는 생태·사회적 전환(SET: Social and Ecological Transition)을 추진해야 할 국면에 도달했다. 현재의 생산/분배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적극적으로 탈성장 혹은 느린 성장에서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놓였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사회적 전환(SET) 측면에서 '농촌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태적 가치'가 발견되는지, 공동체적 측면에서 실천적인 '생태학적 상호작용'이 발생하였는지 등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위치의 사람들이 실험집단에 포함된 만큼 청년과 노인, 여성, 이주민, 소농민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잘 대변되지 않았던 집단의 목소리들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한다.

'농촌'이라는 공간은 시간성과 관계성의 측면에서 매우 특수하다. 농촌의 시간흐름은 도시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며 인간과 자연의 밀접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사회실험을 통해 커먼스(common)의 재/발견, 지속가능한 경제와 자급모델의 개발,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 기본소득 논의 활성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조합 탐색 등의 과업들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액티비즘(activism)으로서 농촌기본소득 실험이 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한다.